도난 옥천사 나한상, 제자리를 찾다

소장자, 12일 옥천사에 무상 기증… 본지 보도 2달여 만에 '성과'

1988년 도난됐던 옥천사 나한상 2점이 다시 옥천사로 돌아왔다. 이것으로 총 7점의 도난 나한상 중 4점이 환수돼 이제 3점만이 남았다.

고성 옥천사(주지 진성)는 "지난 8월 12일 소장자로부터 아무런 조건없이 도난 나한상 2점을 기증받았고, 이를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 1차 이운해 문화재 상태를 감정받았다. 현재는 다시 이운해 사찰 성보박물관 수장고로 모셨다"고 8월 16일 밝혔다.

옥천사 나한상이 다시 환지본처하는 데는 사찰과 학계의 공조 노력이 컸다. 조선 후기 최고의 조각승 색난 스님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옥천사 나한상은 1988년 7구가 도난됐고, 이중 2점은 2014년 은닉한 사립박물관장이 체포됨으로써 환수조치 됐다. 5점의 나한상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에서 결정적 증거가 6월 18일 열린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학술대회에서 나왔다. **〈옥천사 나한상 관련 기사 본지 1103·1106호 보도〉**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등이 현재 도난 중인 5점의 사진을 학계에 최초로 공개한 것이다. 이들 사진은 문화재 전문가 안귀숙 박사가 1980년대 전국을 다니며 촬영한 것으로, 옥천사 나한상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였다. 특히 이들 사진은 조계종이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에도 없는 사진으로 불교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도난 문화재 환수, 당연한 일
얼굴·이름 등 절대 밝히지 말라"

동북亞 세미나서 진본 사진 공개
사찰·학계 공조가 낳은 선행 모델



고성 옥천사는 8월 12일 소장자로부터 도난 나한상 2점을 무상 기증받았다. 이로써 7점의 도난 나한상 중 4점이 제자리를 찾았다.
사진 제공=옥천사 성보박물관장 원명 스님

사진이 공개되면서 나한상 찾기는 좀 더 용이해졌다. 사진 공개된지 25일만에 옥천사 측은 2013년 제주 본태박물관 기획전 '다정불심(多情佛心): 조선후기 목동자'에서 도난 나한상 2점이 대여·전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옥천사는 소장자를 수소문했고, 그 결과 소장자는 무상 기증을 결정했다.

소장자는 무상기증을 하면서 "도난 문화재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얼굴과 이름 등을 일체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도난 문화재 환수는 문화재 소장 사찰과 학계의 공조로 이뤄낸 성과이자 선행 모델이다. 옥천사는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와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성보문화재 연구와 도난문화재 환수 등 상호 지원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사찰은 소장 및 도난 문화재에 대한 기초 연구 제공을,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영역과 안정적 연구 환경을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협약 초기부터 화제가 됐다. 결국 협약으로 이뤄진 기초 연구가 도난 문화재를 환수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옥천사 성보박물관장 원명 스님은 "이번 나한상 환수는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와의 협약과 세미나의 역할이 컸다. 최선일 위원부터 연구소 관계자까지의 전폭적인 협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일선 사찰들의 성보 연구에 관심을 갖고 도난 문화재 환수에 나섰으면 한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외부에 있어 나한상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현재 나한전의 16나한상을 도지정문화재로 일괄 신청했다. 이를 위해 전문위원들이 방문하는데, 향후 보존 방안 등을 자문받을 예정이다. 보존처리가 완료되면 법회를 봉행해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20회 만해대상 수상자들이 시상식서 만해흉상을 앞에 두고 만해사상 실천을 다짐했다.

"21세기 만해, 평화와 행복 지속 전하길"

제20회 만해대상 시상식 8월 12일 성료

만해축전추진위원회(위원장 오원배)는 8월 12일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제20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만해평화대상은 국제개발NGO단체인 로터스월드·청수나눔실천회, 만해실천대상은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 스퇴거·마가렛 피사레크 수녀, 만해문예대상은 가수 이미자·이승훈 시인이 공동으로 수상했다.

유자효 시인의 사회로 진행된 시상식은 손재현무용단의 축하공연과 만해스님 기념영상 상영, 손흥기 시인의 축시, 시상 순으로 진행됐으며, 만해축전 명예대회장 보광 스님(동국대 총장)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오늘 여섯 분의 수상자는 이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라며 "세상의 종이 되고자 하셨지만 모든 선한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세상의 보호자가 되셨다"며 치하했다.

이날 평화대상을 수상한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평등과 평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만해대상 수상을 계기로 만해스님의 실천적 삶을 미력하나마 계승하기 위해 더욱 용맹정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만해대상 시상식과 함께 만해스님의 사상과 문학혼을 기리는 '2016 만해축전'도 '생명·화해'를 주제로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동국대 만해마을과 인제 하늘내린센터, 인제실내체육관 등 인제군 일원에서 열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교·학계 인사 모임 '생명포럼' 18일 창립

'생명존엄성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자'며 창설된 생명포럼의 창립식이 8월 18일 서울 종로 은덕문화원서 개최됐다. 생명포럼 공동대표단은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김영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좌교수(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선종 원불교 종사 등 종교계 및 학계 인사로 구성됐다.

생명포럼은 향후 △9월 하순 '4대강 재자연화 올바른 원전감시 체제의 구축' 주제 국회 세미나 △10월 14일 월정사서 '생물다양성을 넘어 생명존엄성으로' 주제 국제 세미나 △11월 중순 'GMO 문제 및 먹거리 안전 그리고 생명농사' 주제 세미나 △12월 중순 '종교별 생명정책 제안' 주제 세미나 등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2017년 상반기에는 '세계생명헌장' 초안을 작성해 반포하는 한편, 대선에 맞춰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생명정책 공약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창립을 맞아 진행된 2차 세미나서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동물의 희생과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방식'을 발제했다. **〈관련 발제 27면〉**

박아름 기자

"4대강 잃고, 설악산까지 잃을쏘냐"

26개 불교계 단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기자회견

"우리는 선조에게 물려받은 금수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강을 잃고, 이제 또다시 산마저 잃는다면 어찌 선조를 보며 어떻게 후손을 대할 것인가."

불교환경연대 등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26곳은 8월 17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불교환경연대 등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26곳은 8월 17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불교환경연대 등은 "2011년 환경부가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의 법적 보호종의 서식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기로 규정한 것을 스스로 어긴 조치"라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0월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기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무관하지 않다. 박 정부의 산지 관광활성화 정책에 따라 환경부가 스스로 원칙을 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불교환경연대 등은 지난 7월 26일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담당 공무원 2명이 사업 승인과 지역 여론 몰이를 위해 경제성을 부풀리고 멸종위기종의 서식 등 생태환경을 축소했단 의혹에 대해 "양양군은 용역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서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 내용을 부풀리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훨씬 큰 것처럼 조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양군이 지난 7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의하면 사업예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460억 원으로 책정된 것보다 127억이 늘어 587억 원으로 증가했다. 500억 이상이면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양양군이 이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단 의혹마저 제기됐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불교환경연대 등은 불교적 가치관과 관련 "그동안 말 못하는 멸종위기 보호 동식물을 대신해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서지 못한 점을 참회하며, 앞으로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설악산과 그곳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 천명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불경언해, 훈민정음 발전의 견인차"

한국선학회 등 18~19일 '불교와 한글' 공동 세미나

조선시대 불경 언해가 훈민정음의 배포와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슬옹 인하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는 8월 18~19일 한국선학회·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훈민정음이 불교를 어떻게 보급됐는지를 고찰했다.

김슬옹 교수는 세종이 훈민정음을 보급하기 위해 △언해 중심 복합 전략 △실용성 △다중소통 전략 △교화 전략을 구사했다고 봤다. 이 같은 네 가지 전략이 실현되지 위해서는 불교의 힘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새 문자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산문체 문헌의 불경이 용이했으며, 피지배층과 소통하기에도 유교보다는 불교가 필요했다. 또한 훈민정음 보급과 동시에 종교를 통한 교화도 이룰 수 있었다.

김 교수는 "각종 불경 언해서는 언해의 규범 역할을 했고, 유교 언해서 발간 보급의 바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언집류 불교 문헌은 훈민정음 교육의 핵심인 한글 음절표 보급을 통해 훈민정음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불경 언해가 스님이나 지식인 위주의 보급 역할을 했지만, 진언집류는 민간 신도들을 중심으로 한글 저변확대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불교와 한글, 한국어'(남기심, 연세대), '한글의 탄생과 불교사상의 언어'(노마히데키, 일본 명치학원대), '말뭉치로서의 한글대장경과 그 활용'(서상규, 연세대), '화엄경과 한글 번역'(신규탁, 연세대) '월인석보 어휘색인'(조의성, 동경외대), '훈민정음 표기법과 불전언해'(정우영, 동국대) 등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우리 삶을 바꾸는 기적, 절 수행!

청견 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알아차리고 다스려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

고통과 절망에서 희망과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절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생생한 경험담!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
청견 스님의 신작!

전국에 108배 열풍을 일으킨 청견 스님이 그동안 천만 배의 절을 하며 체험한 이야기들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뜨거운 울림들을 담았다.

현대인이 겪는 몸과 마음의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절 수행의 기본 동작부터 마음가짐,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 첫 책보다 더욱 깊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간중간 그려 넣은 다양한 일러스트는 책을 보다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다르마킹 칼리지
매주 화~토 오후 2시
절 교육 및 수행 점검



청견 스님 지음 / 신국판 / 328쪽 / 값 15,000원

깨달은 공동체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 전화 010-3487-0035 ● www.법왕정사.net ● 판매총판 : 운주사 02-3672-7181 ● 인터넷서점: 붓다북